

# 렉서스, 하이브리드로 소리없는 돌풍... 10월엔 '신차' 출시

상반기 3만대 판매 된 'ES300h' 신형 출시 예정... 신차효과 기대 하이브리드 캠페인·이벤트 진행

도요타의 고급브랜드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ES300h 신형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차 효과도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렉서스코리아는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6276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 동기대비 7%가량 상승한 수치다. 렉서스코리아의 판매 성장은 간판 하이브리드차량인 ES300h와 NX300h가 견인했다. 이 두 차량은 국내 출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 증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ES300h는 출시 첫째(2012년) 94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3년 2875대를 시작으로 2014년 4386대, 2015년



렉서스 코리아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오른쪽)이 올해 10월 국내 출시를 앞둔 신형 ES300h를 소개하고 있다.

5006대, 2016년 6112대, 2017년 7627대를 기록하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4165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수입 하이브리드차로 처음으로 3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수입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시장을 이끌고 있는 NX300h

는 지난해 이 분야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 이후로도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702대가 판매됐다. 또 지난 2016년 출시된 렉서스 RX 450h는 실용성을 앞세워 올 상반기 544대 판매되며 꾸준히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

다. 4세대 RX450h는 렉서스에서 가장 발전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이에 렉서스코리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을 경험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체험 행사 진행을 통해 소비자 직접 확대에 나선다. 렉서스코리아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캠페인으로 '더 파워 오브 h'를 진행한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퍼포먼스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전국 렉서스 전시장,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피플을 찾습니다' 이벤트는 총 28명에게 1주일씩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렉서스 홈페이지 '하이브리드 피플'에서 7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 중 차종을 선택하고 전장장을 내방해 시승하면 된다. 7월 한 달 간 응모가 진행되며 다음달 3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된다.

한편 렉서스코리아는 신형 ES300h를

오는 10월 출시하고 국내 시장 판매에 드라이브를 건다. 렉서스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ES300h는 고강성 저중심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기존 ES가 계승해온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더욱 단단하고 고급스럽게 진화시켰다. 또한 이전보다 휠베이스를 키워 더 넓고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다

외관 모습은 예리하게 꺾이는 세로 핀형상의 스핀들 그릴과 컴팩트한 트리플빔 LED 헤드램프로 단정하면서도 샤프한 프론트 룩을 표현, 측면에는 쿠페와 같은 루프 형상과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용했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2.5L 직렬 4기통 엔진은 흡기효율 향상 및 고속연소로 높은 수준의 열효율을 실현한다. 렉서스 첨단 안전 사양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총 10개의 SRS 에어백, 사각지대 감지모니터(BSM) 및 후측방 경고 시스템(RCTA)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영사기 없는 영화관' 전세계 극장서 새바람 배기가스 제로... BMW '뉴 C 에볼루션'

삼성전자 '오닉스'

출시 1년 만에 10개국 진출

'영사기 없는 영화관'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시네마 LED(발광다이오드) '오닉스'가 등장 1년 만에 전세계 10개국으로 진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닉스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할리우드를 비롯해 중국과 독일 등에도 잇따라 설치되면서 전세계 영화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오닉스는 작년 7월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의 12개 영화관 등에 설치됐다.

국내에서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과 부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선보였으며, 해외에서는 작년 10월 태국 최대 영화관 프랜차이즈인 '시암 파라곤 시네플



지난 4월 멕시코시티의 시네맥스 극장에서 삼성전자 현지 직원들이 삼성 '오닉스'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렉스'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선보였다.

이달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중국 상하이 등 2곳에 새로 설치됐다.

이외에도 멕시코시티, 오스트리아, 인

도 등에도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 2018'에서 시네마 LED의 브랜드를 '오닉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마케팅 전략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국내 공식 출시... 2490만원부터

BMW 그룹 코리아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터라드가 프리미엄 전기 맥시 스쿠터 '뉴 C 에볼루션'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BMW 뉴 C 에볼루션은 지난 부산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배기가스 제로의 이점에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더해 새로운 차원의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BMW i3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94Ah 용량의 새로운 배터리가 장착돼 최대 123.8km까지 주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무공해 주행은 물론 도심 및 광역도시 지역에서 뛰어난 실용성을 제공한다.

뉴 C 에볼루션의 수냉식 전기 모터는 즉각적이고 빠른 응답을 자랑하는 변속기와 함께 출발과 함께 지체 없는 가속력을 보여준다. 정격 출력은 19kW(26마력) 최고 출력은 35kW(48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7.35kg·m다. 최고속도는 129km/h에서 전자적으로 제한되며 정지상태에서 50km



BMW 뉴 C 에볼루션. /BMW그룹코리아

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8초다.

뉴 C 에볼루션은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가 기존 내연기관 모터사이클의 스틸 프레임에 대신한다. 통합형 충전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또는 일반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서도 충전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220V 10A 기준으로 완충까지 약 5시간 10분이 소요된다. BMW 뉴 C 에볼루션의 가격은 2490만원(VAT 포함)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한진그룹, 교육부 인하대 징계조치에 '반박'

"과도한 조치, 법적 대응 검토"

한진그룹이 교육부의 인하대 징계조치 발표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또 한진그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적극 소명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한진그룹은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을 인하대에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우재단의 장학 프로그램 지원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몽골과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의 국가 발전을 선도해갈 인재 양성 지원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와 우호증진을 위해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하대가 이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숍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해당 커피숍과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커피숍 임차료는 병원 1층의 다른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해당 커피숍에 임차료 혜택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하대병원 1층 점포 임차료를 비교해보면 문제가 된 커피숍의 면적은 69.4㎡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가 296만원이다. 1층의 다른 점포는 면적 54.4㎡에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가 224만원이다.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를 따져보면 각각 4만2000원, 4만1000원으로 차이가 없다.

또 학교 비용 운영 및 회계에 관하여 수익을 침해했다는 것과 관련 한진그룹은 "매년 130억원씩 재단 전입금을

지원하는 등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룹의 특 징계열사를 통해 학교 수익을 침해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은 "교육부 징계 등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조원대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학사취소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은 "조원대 사장 편입학 취소도 이미 20년전 문제였다고 했던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는 행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12일 오전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신규 항공기 도입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 성수기 대비 26번째 신규항공기 도입

이스타항공이 올해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두 번째 신규항공기를 도입한다.

이스타항공은 12일 오전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6번째 항공기 도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식은 기내에서 예배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한명씩 항공기 신규 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물 축포를 쏘며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행

사를 진행했다.

이번 신규기재 도입으로 이스타항공은 이바라키, 블라디보스토크 등 신규 노선과 7, 8월 성수기 수요에 대비하게 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총 18대(B737-700 1대, B737-800 15대, B737-900ER 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국내 최초로 보잉의 차세대 주력 항공기인 B737-MAX 8 기종을 2대 도입 예정에 있다. /정연우 기자